

19세기 중국 문헌과 일본 문헌의 외국 지명 유사도 및 번역 표기 특징 연구

— 19세기 일본 문헌 『米歐回覽實記』를 중심으로

김기원*

목 차

1. 서론
2. 중국 문헌의 일본 전래와 『米歐回覽實記』의 배경
 - 1) 『海國圖志』의 성립
 - 2) 『海國圖志』의 일본 전래
 - 3) 『米歐回覽實記』의 문헌 배경
3. 『米歐回覽實記』와 중국 문헌의 외국 지명 음역 표기의 일치율 분석 및 음역 형태소 문제
 - 1) 『米歐回覽實記』와 중국 문헌의 외국 지명 음역 표기의 일치율 조사
 - 2) 외국 지명 번역 표기에 사용된 음역 형태소와 관련한 문제
4. 『米歐回覽實記』의 외국 지명 음역 표기의 특징
5. 결론

국문초록

16세기 마테오 리치의 중국에서의 저술 활동은 외국 지명 번역 표기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에 생성된 외국 지명 번역 표기는 19세기까지 중국의 문헌에도 이어지며, 한국과 일본 등의 한자문화권에도 영향을 미쳤다.

본고는 아편전쟁 이후 중국에서 간행된 魏源의 『海國圖志』에 수록된 외국 지명 표기와 일본 정부 문헌 『米歐回覽實記』에 수록된 지명 표기 간의 유사도를 측정하고 이 서적에 수록된 지명 표기 특징을 통하여, 중국의 영향을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 단국대학교 외국어대학 중국학전공 초빙교수

유사도 측정은 대륙명, 국가명, 도시명, 자연명으로 분류하였다. 표기의 방법에서 표기의 일치와 표기의 재조합 및 일본 조어 그리고 카타카나 표기 4가지로 분류하고 통계를 작성하였다.

유사도 측정 결과 두 서적 간의 대륙명, 국가명 등은 중국의 지명을 직접 차용 혹은 음역 형태소를 재조합하였고, 도시명 및 자연명 등은 중국의 영향이 줄어들고, 한자 표기가 아닌 카타카나로 표기하는 추세로 변화하였다.

키워드: 『海國圖志』, 『米歐回覽實記』, 음역법, 음역 형태소, 외국 지명 표기

1. 서론

한·중·일의 19세기 말 신생 한자어 어휘 연구에 있어서, 지금까지의 연구는 일본에서 번역되거나 조어된 신생 한자어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중국이 1844년 아편 전쟁 이후 개방정책을 실시하여 일본의 개방(1854년)보다 서양과의 교류가 일찍 이루어졌기 때문에 중국에서 근대 신생 어휘는 이른 시기에 형성되었다. 당시 중국의 문화적 영향력을 고려하면, 중국의 근대 신생 어휘는 한국, 일본 등의 한자문화권에 일정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한다.

王力에 의하면 중국의 차용어와 번역어는 두 가지 종류로 분류할 수 있는데, 국내 각 민족에서 들어온 것과 국외에서 들어온 것이다. 국외에서 들어온 것은 다시 서역, 불교, 서양에서 온 것과 같이 세 종류로 분류된다.¹⁾ 王力이 언급한 외재적 영향에 의한 어휘의 변화는 불교의 영향과 19세기 아편 전쟁(1840~1842) 이후 서양의 영향으로 인하여 많은 어휘들이 중국으로 차용 및 번역되면서 이루어졌다.²⁾

근대 중국 신생 어휘의 생성 배경과 관련하여, 이전 연구에서는 19세기 이후 중국과 일본의 개방에서 기인하여 신생 어휘가 생성되었다는 관점이 지배

1) 王力, 『漢語史稿』, 北京: 中華書局, 2004, 587~588쪽.

2) 王力, 앞의 책, 587~597쪽.

적이다. 그러나 근대 중국 신생 어휘 생성은 16세기 마테오 리치(중국어명: 利瑪竇)가 중국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출판물을 간행하는 등의 활동이 시발점이다. 마테오 리치가 중국 남부에 도착하여 선교 활동을 하기에 앞서, 먼저 서양을 소개하기 위하여 서양의 지리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였다. 이에 『坤輿萬國全圖』(1602)라는 지도를 간행하였다.³⁾ 『坤輿萬國全圖』를 설명하기 위하여 지리학 관련 어휘가 번역되었고, 유럽 및 세계 각 국가의 지명을 번역하기 시작하였다.

마테오 리치 이후에도 천주교 예수회 선교사들은 서양과 천주교를 소개하기 위하여 저작 및 간행 활동을 하였다. 대표적으로 艾儒略(Julius Aleni, 1582~1649), 南懷仁(Ferdinandus Verbiest, 1623~1688) 등 초기 천주교 선교사들은 『職方外記』(1623), 『坤輿圖說』(1672) 등 지도와 지리서를 발간하였다. 지도와 지리서에는 각국의 지명과 지리학 관련 어휘들이 출현하는데 이것을 번역한 것이 외국 지명 번역 표기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서양 기독교와 언어 접촉은 불교의 영향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불교의 접촉으로 인하여 번역과 서적 간행으로 인하여 중국어에서는 성조의 인식, 어휘 복음사(複音詞)화의 가속화 등과 관련한 언어적 변화가 일어났다. 이와 마찬가지로 중국에서 서양과의 언어 접촉, 특히 기독교와의 언어 접촉은 중국 및 한자문화권에 새로운 어휘를 수입하는 통로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3) 卍우전환 지음, 한지은 옮김, 『지리학의 창으로 보는 중국의 근대』, 서울: 도서출판 푸른역사, 2013, 44~45쪽.

마테오 리치의 세계지도는 1584년부터 명대 말 전후의 시기까지 서로 다른 판본 12종이 나왔다. 그 중에 1602년 李之藻(1565~1631)가 판각한 吳中明 판본의 수정본인 『坤輿萬國全圖』가 가장 널리 유행했다. 1601년 마테오 리치가 중국 황제에게 바친 공물 중에는 『萬國圖志』라는 책이 있었다. 이것은 나뉘어 그려진 53종의 지도를 모은 세계지도책이었다. 『坤輿萬國全圖』에는 적도 북부와 남반구가 그려져 있고, 지구는 둥글다는 것, 남북극과 적도 남북의 밤낮의 길이, 五帶(열대와 남북 양 온대 및 남북 양 한대의 다섯 기후대)에 관해서 상세한 주를 달았다. 또한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남북아메리카, 남극 및 대양주 등 오대주의 명칭과 유럽의 30여개 국가를 열거하고 있다.

같은 서양과의 언어 접촉은 실행 주체에 따라,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하나는 서양 선교사들에 의한 번역 및 출판 작업이며, 다른 하나는 중국 지식인들의 서양 자료 번역과 편집이다. 19세기 중국 지식인들의 관점에서 서양 자료를 수집하여 편집한 대표적인 서적으로 魏源의 『海國圖志』(1842)가 있다.⁴⁾

선교사가 출판한 서적과 『海國圖志』 등에 수록된 근대 신생 어휘는 크게 음역 어휘와 의역 어휘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음역 부분에 있어서, 대표적으로 외국 지명 음역이 있다. 중국은 일본보다 먼저 서양과 언어 접촉을 하였기 때문에, 외국 지명의 번역 및 음역 방법에서는 중국이 한자문화권에 일정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김기원(2018, 2023)에서도 한국의 외국 지명 음역 및 번역 표기는 중국의 음역을 그대로 차용하거나 혹은 중국의 외국 지명 음역에 많이 사용되는 음역 형태소를 사용하면서 한국 한자음을 고려한 음역을 하는 특징을 가졌다고 논술한 바가 있다.⁵⁾ 19세기 대규모 음역이 일어나는 시기에 한국과 일본 등의 한자문화권 지식인들은 여전히 중국 중심의 사고를 하고 있었다. 현재, 로마자 알파벳을 대부분 사람이 활용하여 표기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시기 한자문화권의 지식인들은 중국의 음역 형태소를 사용하여 조어 혹은 음역이 가능한 수준이었을 것이다. 『海國圖志』는 세계 각국의 지리 및 사회, 문화 등을 설명하는 책으로서, 많은 외국 지명 번역 표기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일본의 『特命全權大使米歐回覽實記』(이하 『米歐回覽實記』)이 많은 외국 지명 번역 표기를 수록하고 있어 『海國圖志』와 『米歐回覽實記』에 수록된 외국 지명 표기의 관련성을 연구할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다.

『米歐回覽實記』의 외국 지명 표기에 관한 선행 연구로서 박성희(2012)의 연구가 대표적이다.⁶⁾ 이 연구는 중국 문헌인 魏源의 『海國圖志』(1842)와 徐

4) 金琪源, 『19世紀末朝鮮文獻中的新詞研究—從語言接觸視角出發』, 國立政治大學博士學位論文, 2023, 97~125쪽.

5) 김기원(2018), 「개화기 조선의 외국 국명 한자 표기에 반영된 언어학적 특징 고찰」, 『중국어학연구』, 제71집. 金琪源(2023), 『19世紀末朝鮮文獻中的新詞研究—從語言接觸視角出發』, 國立政治大學博士學位論文. 외국 지명을 음역할 때, 사용 빈도가 높은 글자가 있다. 이것들을 음역 형태소라고 지칭하기로 한다.

6) 박성희, 『明治期日本の 西洋地名表記研究—特命全權大使米歐回覽實記를 중심으로』 고려

繼畚의 『瀛環志略』(1850) 외국 지명 번역 표기와 『米歐回覽實記』에 포함된 외국 지명 번역 표기 간의 관련성을 논의하였다. 동시에,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의 『西洋事情』(1866)에서 음역한 19세기 말 일본의 외국 지명 번역 표기를 함께 비교, 고찰하였다. 이를 통해 중국 음역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일본 음역과의 관계까지 논함으로써 계통성을 확립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 다만, 이 논문에서 아쉬운 점은 중국 번역에서 사용된 음역 형태소가 일본의 외국 지명 번역 표기에서도 사용되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한다.

본고는 19세기 중국 문헌 『海國圖志』, 『瀛環志略』과 일본 문헌 『米歐回覽實記』의 외국 지명 음역 표기의 관련성을 고찰하기 위하여 두 서적에 사용된 지명의 유사도를 측정하고, 『米歐回覽實記』에 포함된 외국 지명 번역 표기의 특징을 고찰한다.

2. 중국 문헌의 일본 전래와 『米歐回覽實記』의 배경

1) 『海國圖志』의 성립

19세기 청나라 정부는 영국과의 무역 마찰로 인하여 서양 각국에 대한 정보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서적들은 대부분 서양인의 서적이기 때문에 중국인의 시각에서 서양을 서술한 서적의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요구에 맞추어 출판된 책이 바로 『海國圖志』이다. 『海國圖志』는 魏源의 저작이지만, 『海國圖志』의 성립 배경은 林則徐와 관계가 깊다. 1838년 林則徐(1785~1850)는 道光帝(제위1820~1850)의 명을 받아 欽差大臣의 신분으로 광주(廣州)의 아편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다. 그는 아편 문제 조사 과정에서

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2.

서양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고, 서양 국가들의 지리, 정치, 역사, 문화 등을 조사하였다.⁷⁾

林則徐는 역원(譯員)을 구성해 미국 공리회(公理會) 선교사인 브라운에게 선물을 받은 1836년 영국 머레이(Hugh Murray)의 런던판 『세계지리대전 (The Encyclopaedia of Geography)』을 『사주지(四洲志)』로 편역했다. 이 책은 1836년 런던에서 출판된 당시의 최신판 세계 지리 백과사전이었다. 이 책의 중문 편역본인 『사주지(四洲志)』는 아시아·아프리카·유럽·아메리카 네 대륙 주요 국가들의 자연 지리와 인문 지리 용어를 번역했는데, 그 번역문의 분량이 약8,700여 자에 달한다.⁸⁾ 『四洲志』의 전체 내용이 『海國圖志』의 3, 5, 7, 13, 14, 16, 20~22, 25~33, 36~43권에 나누어 수록되었다. 魏源은 『四洲志』의 내용을 각 편의 제일 앞에 배치하고 그 뒤에 다른 내용을 담았다.⁹⁾

林則徐는 자신의 연구 성과를 당시 내각중서(內閣中書)의 직책을 맡고 있던 魏源과 공유하였다. 魏源은 林則徐의 자료에 다른 선교사들이 쓴 기록 및 중국어로 된 자료들을 보태어 자료집을 완성하였다.¹⁰⁾

『海國圖志』는 1844년에 50권이 초판으로 발행되었다. 1847년 60권으로 증보되었고, 1852년에는 100권으로 증보하였으며, 1895년에는 125권까지 증보하였다. 『海國圖志』는 음역을 이용한 지명 표기가 많다. 이 음역 지명들의 출처는 대부분 17세기 천주교 선교사들이 중국어를 이용하여 저술한 지리서들과 17세기 이후의 지리서와 여행기들이다.¹¹⁾

7) 페데리코 마시니, 이정재 옮김, 『근대 중국의 언어와 역사』, 서울: 소명출판, 2005, 43~53쪽.

8) 짜우전환, 앞의 책, 438쪽.

9) 짜우전환, 앞의 책, 439쪽.

10) 페데리코 마시니, 이정재 옮김, 앞의 책, 43~53쪽. 艾儒略(Julius Aleni) 『職方外記』, 南懷仁(Ferdinandus Verbiest) 『坤輿圖說』, 馬禮遜(Robert Morrison) 『外國史略』, 禱理哲(Richard Quarterman Way) 『地球圖說』, 郭實臘(Karl Friedrich August Gutzlaff) 『東西每月統記傳』, 『貿易通志』, 裨治文(Elijah Coleman Bridgman) 『美理哥國(合省)志略』 등.

11) 페데리코 마시니, 이정재 옮김, 앞의 책, 43~53쪽. 국사편찬위원회, 우리 역사 넷, 『海國圖志』(http://contents.history.go.kr/front/tg/view.do?levelId=tg_004_1390): 초판의 출판년도를 1842년으로 기재하였다. 鄒振環(444페이지)도 초판의 출판년도를 1842년으로

『海國圖志』은 서양의 국민, 국가 그리고 기술 등에 관한 최초의 근대적 자료집이라고 할 수 있다.

2) 『海國圖志』의 일본 전래

『海國圖志』는 일본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생각하는데, 『海國圖志』의 일본 전래와 관련하여, 마시니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¹²⁾

1850년 『海國圖志』(1847년 60권) 제2판, 3질의 가장 이른 사본이 일본에 전래 되었다. 그러나 바로 금지당했다. 1854년, 이 책의 8질의 인쇄본이 일본에 판매되었다. 1854년에서 1869년 사이에 이 책의 각 장의 일역본을 채택한 25종 책이 번역 출판되었다. 이 책들의 첫 부분은 모두 일본이 절실히 알아야 할 국가들의 정황이다. 그러한 국가들로 미국, 프랑스, 러시아, 인도, 영국 등이 있다.

위의 내용으로 비추어 볼 때, 『海國圖志』는 제2판이 일본에 전래하였으나 널리 퍼지지는 않았다. 1854년과 1869년 사이에 『海國圖志』 번역, 인용한 서적들이 출판되어 일본 각지에 전해진 것으로 보인다.

『海國圖志』의 일본 전래에 관하여, 鄒振環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¹³⁾

기술하였다. 그러므로 본고는 『海國圖志』의 초판의 출판년도를 1842년으로 보도록 한다.

12) 馬西尼撰, 黃河清譯, 『現代漢語詞彙的形成—十九世紀漢語外來詞研究』, 上海: 漢語大辭典出版社, 1997, 98쪽. 1850年, 海國圖志(1847, 60卷) 第二版, 有三套最早的副本傳到了日本, 但即遭禁止. 1854年, 該書有8套印本銷往日本. 1854年至1869年之間翻譯出版了25種取自該書各章的日譯本. 這些書的第一部分都是日本迫切需要了解的那些國家的情況, 如美國, 法國, 俄國, 印度, 英國等. 한국어판과 위의 책 중국어판은 동일한 책이나 한국어판에 위의 내용이 생략되어 있다.

13) 찌우전환, 앞의 책, 446쪽.

1853년 『海國圖志』 60권본과 『瀛環志略』은 잇달아 일본에 전해져 히로 세코 쿠소 廣瀨旭庄(1782~1856), 하시모토 사다(橋本佐田) 등의 학자들이 『海國圖志』에 대해 탐구를 계속하며 朱批를 더했다. 1853년부터 막부의 각료인 카와지 사에(川路左衛), 모노쥬토 사아키라(門尉聖謨)의 명을 받은 학자 시오노야토 오인(鹽谷世弘) 훈점 번역본이 출판된 것을 시작으로 각종 번역본 훈해본(訓解本), 일역본(和解本) 교정본이 우후죽순처럼 만들어져 전성기를 이루었다. 1854년 이후 한 두해 동안 『海國圖志』의 훈점역각본(訓點譯刻本)과 방각본(邦刻本) 등이 20여종 발간되었다.

1853년에 『海國圖志』 60권본과 『瀛環志略』이 일본에 전해졌다. 1853년 일본에서 훈점 번역본 및 훈해본 등 각종 번역본이 발간되었으며, 1854년까지 『海國圖志』 20여 종이 발간되었다. 이로 볼 때, 1853년 미국 페리 제독의 흑선 사건으로 인하여, 일본에서도 서양에 관한 정보의 필요성으로 인하여 중국에서 발간된 『海國圖志』와 『瀛環志略』이 일본에서도 각종 번역본으로 발간된 것으로 보인다.

1871년에 『米歐回覽實記』의 주체인 이와쿠라 사절단(岩倉使節團)이 미국과 유럽 각국을 순방하였고, 『米歐回覽實記』는 1878년도에 간행되었으므로 사절단이 『海國圖志』를 보았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앞서 언급한 『海國圖志』 전래 내용과 『海國圖志』의 일본 간행 내용에 근거하면, 『海國圖志』가 일본에 일정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생각한다.

3) 『米歐回覽實記』의 문헌 배경

1871년 일본은 미국 및 유럽 강대국으로 정부 사절단을 파견한다. 이 정부 사절단은 이와쿠라 사절단(岩倉使節團, 1871~1873)으로, 이와쿠라 토모미(岩倉具視)가 특명전권대사로 기도 다카요시(木戶孝允)가 부사로 참여하고 46명의 관료와 종자, 유학생을 포함하여 107명으로 구성되었다. 이와쿠라 사절단은 1년 10개월 동안 서양 12개국을 회람하였다.¹⁴⁾ 『米歐回覽實記』는 1871년

에 정부 파견 외교단인 이와쿠라 사절단(岩倉使節團)이 미국과 유럽 각국을 시찰하고 작성한 국가의 공적 보고서이다. 이는 구메 구니타케(久米邦武)가 편수하여 1878년 10월 일본 태정관(太政官) 기록부에서 간행되었으며 전 100권, 5편 5책으로 구성되어 있다.¹⁵⁾ 1871년부터 1873년에 걸쳐 미국과 유럽에 파견된 사절단은 12개국을 시찰하였다. 『米歐回覽實記』에는 사절단의 일정 진행과 견문, 통찰을 기록한 실록(實錄) 부분과 논설(論說) 부분이 백과사전과 같은 형식으로 서술되어 있다. 또한 사절단이 미국과 유럽 각국을 방문하고 서구의 발달한 문물과 제도를 시찰하며 목격한 사실을 실록(實錄) 형태로 작성한 것이다. 『米歐回覽實記』의 내용은 정치, 경제, 산업에서 종교와 사상, 문화에 이르기까지 구미 각국의 모든 분야에 관해 다루고 있다. 이 책의 주요 집필과 편집자는 구메 구니다케(久米邦武)와 하다케야마 요시나리(畠山義成)이다. 또한 사절 단원들의 개인적인 기록물도 모아 함께 편찬하였다. 미국과 유럽 각국의 지명 표기가 다수 나타나고 있어 메이지 시대의 외국 지명 표기를 연구하는 데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米歐回覽實記』는 1878년도에 간행되어 메이지 초반의 근대적인 외국 지명 표기법을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공적 보고서인 만큼 당시 통용되던 일반적인 외국 지명 표기 방식을 검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다.¹⁶⁾

14) 다나카 아키라(田中彰) 지음, 현명철 옮김, 『메이지 유신과 서양문명-이와쿠라 사절단은 무엇을 보았는가?』, 서울: 도서출판소화, 2006, 18~21쪽.

15) 일본 태정관(太政官): 태정관은 1885년 일본이 근대적인 내각제도를 도입하기까지 입법, 행정, 사법의 3권을 아우르는 당시 일본의 최고통치기관이었다. 이성환, 「태정관과 태정환 지령은 무엇인가?-독도 문제와 관련하여-」, 『독도연구』, no.20, 2016, 95쪽.

16) 박성희, 앞의 논문, 70~72쪽.

3. 『米歐回覽實記』와 중국 문헌의 외국 지명 음역 표기 일치율 분석 및 음역 형태소 문제

『米歐回覽實記』에 수록된 외국 지명 번역 표기와 『海國圖志』 등의 중국 문헌에 수록된 외국 지명 번역 표기의 관련성을 조사하기 위해 박성희(2012)에 수록된 『米歐回覽實記』 지명 어휘 목록과 19세기 중국 문헌인 魏源의 『海國圖志』와 徐繼畬의 『瀛環志略』에 포함된 외국 지명 음역을 추출하여 세 서적의 외국 지명 음역의 유사도를 조사하였다.¹⁷⁾

1) 『米歐回覽實記』와 중국 문헌의 외국 지명 음역 표기의 일치율 조사

본고는 『米歐回覽實記』의 외국 지명 번역 표기를 4종류로 분류하였다. 첫 번째는 중국 문헌에서 먼저 번역한 지명을 『米歐回覽實記』에서 그대로 차용하여 사용하는 유형이다. (직접 차용) 두 번째는 중국 문헌에서 먼저 번역한 지명을 『米歐回覽實記』에서 부분적으로 재조합한 것이다. 이는 중국의 음역 형태소를 사용하여 『米歐回覽實記』의 저자가 재구성한 것이다. (이하 재조합) 세 번째는 일본이 직접 조어한 것이다. 이 종류는 일본 한자음을 고려한 번역 및 조어로 생각한다. 마지막 네 번째는 카타카나를 사용하여 번역 표기한 유형이다. 일본은 서양과 언어 접촉 과정 중에서, 표음 문자 표기를 인식하고 중국 표의 문자 중심에서 표음 문자로의 전환이라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였다.

위의 4종류 음역 중에서 첫 번째 유형인 중국 문헌의 번역을 직접 차용한 것과 두 번째 중국 문헌에서 번역한 지명을 재조합한 것은 중국의 영향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 일본 조어와 네 번째 카타카나 표기는 일본

17) 『瀛環志略』의 외국 지명 번역 표기의 분량이 『海國圖志』보다 많지 않으므로 『海國圖志』 중심으로 논지를 전개하고, 『瀛環志略』은 보조적으로 사용하였다.

의 독자적 번역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전 박성희의 연구에서 『米歐回覽實記』에 포함된 외국 지명과 중국 문헌 『海國圖志』에 포함된 외국 지명의 번역 표기 간의 일치율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에 따르면, 『海國圖志』와 『米歐回覽實記』의 번역 일치율은 동일한 표기가 사용되어 그 표기가 완전히 일치하는 표기례는 64개 27.3%의 일치율을 보인다고 하였다.¹⁸⁾ 위의 일치율 조사는 본고에서 분류한 첫 번째 유형인 중국 번역을 직접 차용한 지명만을 일치라고 보고 통계한 것이다. 두 번째 유형인 중국 문헌에서 번역한 지명을 재조합한 것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분류하여 통계 결과를 도출하였다. 위의 내용을 근거로 일치율 통계를 작성한다면, 당연히 중국 문헌 속의 외국 지명이 일본 문헌에 미치는 영향은 감소할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위의 일치율 조사에서 오류를 인식하고 중국 문헌의 외국 지명 번역 표기 중 재조합한 외국 지명을 중국의 영향으로 분류하여 일치율 통계를 작성하였다. 일치율 조사의 명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위하여, 외국 지명을 대륙명, 국가명, 도시명, 자연명으로 분류하였다. 음역 및 번역 방법으로 일치, 재조합, 일본 조어, 카타카나 표기로 분류하였다. 『米歐回覽實記』에 수록된 대륙명의 외국 지명 번역 표기의 일치율 비중 분석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표1 『米歐回覽實記』에 수록된 대륙명의 중국 번역과의 일치율 비중 조사

	일치	재조합	일본조어	카타카나	총합
갯수	5	1	0	0	6
비중(%)	83.33%	16.67%	0	0	100%
한자 표기 비중(%)	83.33%	16.67%	0	제외	100%

대륙 명의 외국 지명 번역 표기는 모두 한자 표기이며, 중국의 번역 표기와 일치하는 지명이 6개 중 5개로 83.33%를 차지한다. 중국 번역의 재조합은 1개로 16.67%를 차지한다. 그 밖에 일본에서 조어한 것과 카타카나 표기의 대

18) 박성희, 앞의 논문, 139쪽.

록명은 『米歐回覽實記』에 수록되지 않았다.

『米歐回覽實記』에 수록된 국가명의 외국 지명 번역 표기의 일치율 비중 분석 결과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2 『米歐回覽實記』에 수록된 국가명의 중국 번역과의 일치율 비중 조사

	일치	재조합	일본조어	카타카나	총합
갯수	23	14	2	7	46
비중(%)	50%	30.43%	4.35%	15.77%	100%
한자 표기 비중(%)	58.97%	35.90%	5.13%	제외	100%

위의 표2의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중국의 번역과 동일한 표기가 23개로 50%를 차지한다. 그 다음으로 재조합 표기는 14개 30.43%, 일치하지 않는 것인 일본 조어는 2개 4.35%, 카타카나 표기 7개로 15.77%이다. 중국의 영향을 받은 표기인 일치 표기와 재조합 표기를 더하면 37개로 전체 약 80.43%를 차지하고, 중국의 영향을 받지 않은 표기인 일본 조어와 카타카나 표기를 합치면 9개로 약 19.57%를 차지한다. 중국의 지명 번역은 한자 지명에만 국한하므로, 카타카나 표기 부분을 제외하고 한자 지명의 일치율 통계 결과, 중국의 번역과 동일한 한자 표기는 58.97%, 중국의 번역을 재조합 표기는 35.90% 일본 조어가 5.13%이다. 이처럼 한자 지명에 국한하여 중국의 영향을 받은 지명은 총 94.87%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米歐回覽實記』에 수록된 도시명의 외국 지명 번역 표기의 일치율 비중 분석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표3 『米歐回覽實記』에 수록된 도시명의 중국 번역과의 일치율 비중 조사

	일치	재조합	일본 조어	카타카나	총합
갯수	30	68	12	240	350
비중(%)	8.57	19.43	3.43	68.57	100%
한자 표기 비중(%)	27	62	11	제외	100%

도시명의 외국 지명 번역 표기 중에서 『海國圖志』의 표기와 『米歐回覽實記』

』 표기가 일치하는 표기는 30개로 8.57%이다. 『米歐回覽實記』에서 중국의 외국 지명 번역 표기를 참조하여 재조합으로 판단할 수 있는 표기는 68개로 19.43%이다. 일본 조어는 12개로 3.43%이며, 카타카나 표기는 240개로 68.57%를 차지한다. 앞서 살펴본 대륙명과 국가명은 한자로 음역된 지명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 도시명의 번역은 카타카나 표기의 비중이 높아졌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원인은 대륙명, 국가명의 경우, 기존에 중국에서 먼저 번역된 것을 일본에서 차용하거나 재조합하여 사용한 반면 도시명의 경우, 중국에서 먼저 번역되지 않은 지명들은 일본에서 한자로 조어하는 것보다 카타카나를 사용하여 번역하는 것이 우선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카타카나 표기 지명을 제외하고 한자 지명만을 보았을 때, 중국의 번역과 동일한 것은 27%, 중국의 번역을 재조합 것은 62%, 일본 조어는 11%임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으로 『米歐回覽實記』에 수록된 자연명의 외국 지명 번역 표기의 일치율 비중 분석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표4 『米歐回覽實記』에 수록된 자연명의 중국 번역과의 일치율 비중 조사

	일치	재조합	일본 조어	카타카나	총합
갯수	19	24	9	153	205
비중(%)	9.22	11.65	4.37	74.76	100%
한자표기비중(%)	36.54	46.15	17.31	제외	100%

자연명에서는 중국의 번역과 일치하는 번역 표기, 재조합 표기, 일본 조어의 한자 표기는 총 52개로 25.24%를 차지하는 반면, 카타카나로 표기된 지명은 154개로 74.76%를 차지한다. 도시명과 마찬가지로 자연명도 중국의 번역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혹은 영향이 미미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위의 내용으로 볼 때, 일본에서 기존의 한자 중심의 번역에서 표음 번역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의도도 엿볼 수 있다. 아울러, 한자 표기 번역을 중심으로 보았을 때, 중국의 번역과 동일한 것은 19개로 36.54%, 중국의 번역을 재조합한 것은 24개로 46.15%, 일본의 번역은 9개로 17.31%를 차지한다. 위의 결과를 근거로 하면, 한자 표기의 번역은 중국의 영향이 약 82.7%로, 중국의 영향

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논의한 일치율 비중 조사를 종합하면, 첫째, 대륙명의 경우, 중국의 외국 지명 번역 표기와 일치하는 표기, 중국의 외국 지명 번역 표기를 재조합한 표기를 합치면 100%로 중국에서 이미 번역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는 대륙명이 중국에서 이른 시기에 번역되어 일본에서 이것을 수용하였는데, 어휘가 정착하기 위한 시간이 길어, 정착을 한 후 사용 빈도가 높아졌을 것으로 생각한다. 둘째, 국가명의 경우, 일치하는 지명과 재조합 지명을 합친 비중이 80.43%를 차지한다. 이는 전통의 아시아 국가명 및 서유럽 및 북아메리카 강대국의 지명 번역 표기는 중국의 번역을 사용하거나 참조한 것으로 생각한다.¹⁹⁾ 셋째, 도시명의 경우, 중국의 외국 지명 번역 표기와 일치하는 지명과 중국의 외국 지명 번역 표기를 재조합한 지명 표기를 합친 비중은 약 27%에 불과하다. 넷째, 자연명의 경우, 중국의 외국 지명 번역 표기와 일치하는 지명과 중국의 외국 지명 번역 표기를 재조합한 지명 표기를 합친 비중은 약 20%에 그친다. 이를 통해 대륙명에서 자연명으로 갈수록 중국의 영향이 점차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2) 외국 지명 번역 표기에 사용된 음역 형태소와 관련한 문제

외국 지명 번역을 표기함에 있어서, 기존 연구에서는 동음이자(同音異字)로 인하여 같은 음을 나타내는 다른 형태가 있는 경우 이를 단지 각 문헌의 차이로만 인식하였다. 예컨대, 박성희(2012)는 동음이자 문제를 제기하면서 馬尼拉, 馬尼刺를 그 예로 들었다. 그의 주장은 한자의 동음이자로 인하여 중국에서는 /la/의 번역으로 拉을 사용하였고, 일본에서는 刺를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刺는 拉의 이전 번역으로 보아야 한다. 중국의 근대음은 입성운미가 사라

19) 중국에서 이미 번역된 대륙명과 국가명을 사용하는 결과는 한국의 유길준의 서유견문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찾을 수 있다. 김기원, 「개화기 조선의 외국 국명 한자 표기에 반영된 언어학적 특징 고찰」, 『중국문학연구』, 제71집, 2018, 참조.

졌기 때문에 刺와 拉의 차이가 없는데, 이는 원나라 이후 교체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실은 13-15세기의 문헌인 『蒙古秘史』와 『華夷譯語』에서 /la/, /ra/음을 음역할 때, 刺가 보편적으로 사용된 점에서 알 수 있다.²⁰⁾ 또한, 이기문(2007)은 중세 몽골 차용어에서 어선(御膳)을 의미하는 수라(水刺)가 사용되었다고 언급하였다.²¹⁾ 이처럼 중국이 아닌 조선에서 수라의 번역으로 水刺가 사용된 것을 볼 때, 일본에서도 /la/의 번역으로 刺가 많이 사용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리라 추측한다. 그러므로 /la/의 번역으로 『米歐回覽實記』에서 刺를 사용한 것은 중국의 拉와 다른 특징이라고 할 수 없다.

동음이자 문제로 인해 나타나는 또 다른 형태소는 頓, 敦, 墩이 있다. 頓, 敦, 墩은 중국 근대음 운서인 『中原音韻』(1324)과 『洪武正韻』(1375)에서 각각의 성모와 운모가 동일하여 상호 간에 대체하여 쓸 수 있는 글자이다.²²⁾ 『中原音韻』과 『洪武正韻』에 나타난 頓, 敦, 墩의 음운 현황을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5 『中原音韻』의 頓, 敦, 墩 음운 현황

『中原音韻』	字母	韻部	聲調
頓	端	真文	去聲
敦	端	真文	陰平
墩	端	真文	陰平

20) 김기원, 「차용어 ‘사돈’과 ‘수라’의 의미 및 표기 문제 고찰」, 『中國語文論叢』, 第85輯, 2018. 『蒙古秘史』에서 /la/와 /ra/의 음역으로 刺가 사용된 예: 札刺兀禿(jalagutu) : 札刺兀은 청년을 의미한다. 禿는 소유격을 나타낸다. 舍刺除思(karacus) : 검은뺨. 巴勒諄, 阿刺勒(balcun-Aral) : 물 이름. 阿撒刺罷(asaraba) : 사육하다. 忽刺周(quraju) : 모이며. 失刺(sira) : 황색. 禿黑刺周(tuglaju) : 오색 비단 끈 머리의 깃발을 들고. 등 참조.

21) 이기문, 「중세 몽골어 차용어에 대하여」, 『새국어생활』 제17권 제4호, 2007, 123쪽.

22) 小學堂 <https://xiaoxue.iis.sinica.edu.tw/>

표6 『洪武正韻』의 頓, 敦, 墩 음운 현황

『洪武正韻』	反切	字母	韻部	聲調
頓	都困	端	真	去聲
敦	都昆	端	真	平聲
	都困		真	去聲
墩	都昆	端	真	平聲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頓, 敦, 墩의 성모, 운부가 동일하며, 반절도 동일하거나 교차 사용이 가능하다. 김기원(2018)에서 차용어 사둔(sadun)의 번역어로 한국에서는 查頓을, 중국 원곡(元曲)에서는 撒敦을, 청나라 시기에는 薩敦을 사용하였다고 밝혔다.²³⁾ 그러므로 『米歐回覽實記』에 頓, 敦, 墩이 교차 사용된 점을 『米歐回覽實記』의 특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세 번째 동음이자 음역 형태소는 /l, r/을 번역한 兒, 耳, 爾이다. 중국 문헌의 지명 번역에 있어, 위 세 형태소는 서로 상호 대체가 가능하다. 그 예로 페르시아(Persia)의 번역 표기가 있다. 『海國圖志』에서 페르시아(Persia)의 번역어는 波斯, 巴社, 包社, 伯爾西亞, 伯耳西亞, 百兒西亞 등이 있다. 페르시아(Persia) /r/의 번역으로 兒, 耳, 爾이 모두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프랑스 마르세유(Marseille)는 『海國圖志』에서 馬悉利, 馬悉利邑으로 번역한다. 『米歐回覽實記』에서는 馬兒塞, 馬耳塞, 馬爾塞, 馬爾塞兒 등으로 번역한다. 이처럼 『海國圖志』는 마르세유(Marseille)의 /l, r/을 번역함에 있어, 앞에 /r/을 번역하지 않고 뒤의 /l/을 번역하였다. 반면, 『米歐回覽實記』에서는 앞의 /r/만 번역한 것과 모두 번역한 것이 있다. 『海國圖志』는 兒, 耳, 爾 형태소를 사용하지 않고 번역하였으나, 『米歐回覽實記』는 중국의 형태소를 사용하여 번역하였다. 이로 볼 때, 『米歐回覽實記』는 『海國圖志』의 영향뿐만 아니라, 다른 중국 문헌의 영향을 받았음을 추정한다. 또한 중국의 음역 형태소를 일본에서 활용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sa/를 번역한 음역 형태소로 撒, 薩가 있다. 독일의 작센주(Sachsen)를 『海

23) 김기원, 앞의 논문.

『海國圖志』에서는 薩索尼亞, 撒孫部 등으로 번역하였다. 『米歐回覽實記』에서는 薩, 薩撒, 薩索尼國, 撒遜國 등으로 번역하였다. 이는 앞서 언급한 한국 차용어 사둔(sadun)과도 관련이 있는데, 원나라 시기에 /sa/의 번역어 撒가 청나라에 이르러 薩로 대체된 것으로 추정한다.²⁴⁾ 『米歐回覽實記』와 『海國圖志』에서 /sa/와 관련된 지명은 撒와 薩가 혼용된다. 아래는 『米歐回覽實記』와 『海國圖志』에 나타난 撒와 薩의 혼용 사례이다.

표7 『米歐回覽實記』와 『海國圖志』에 나타난 撒와 薩의 혼용 사례

원음	『海國圖志』	『米歐回覽實記』
Saxe-Coburg-Gotha	薩克撒各布爾厄額達	薩撒堡國
Saxe-Meiningen	撒孫買寧	薩撒國
Saxe-Saalfeld-Coburg	薩撒堡國	無
Saxony	薩, 薩撒, 薩索尼國, 撒遜國	薩索尼亞, 撒孫部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海國圖志』와 『米歐回覽實記』 모두 撒와 薩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s/의 음역 형태소는 斯와 士가 있다. 아래는 『米歐回覽實記』와 『海國圖志』에 나타난 斯와 士의 사용 사례이다.

표8 『米歐回覽實記』 중의 斯, 士의 사용 사례

원음	『海國圖志』	『米歐回覽實記』
Boston	波士頓	波士敦
Glasgow	甲拉峨	哥羅斯哥
Lancashire	蘭加社部	蘭加斯達州
Mississippi River	密西西比河, 密士失必, 米西悉比, 米西西卑, 美士細比	密河, 密士失比 密斯失比河
Reuss	留斯	古留士, 新古留士
Thames	無	達迷斯河

Glasgow의 번역으로 『海國圖志』에서는 甲拉峨를 사용했는데, 『米歐回覽實記』에서는 哥羅斯哥로 번역하였다. 현대 중국어에서 Glasgow의 번역은 格拉

24) 김기원, 앞의 논문.

斯哥이다. 그러나 『海國圖志』에서 Glasgow의 /s/를 번역하지 않았는데, 『米歐回覽實記』는 /s/의 번역으로 斯를 사용하였다. 또한 『海國圖志』에서 Mississippi River의 번역 표기로 密士失必, 美士細比 등을 찾을 수 있는데, /s/의 번역으로 士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米歐回覽實記』에서 Mississippi River의 번역 표기로 密士失比, 密斯失比河 등을 찾을 수 있는데, /s/의 번역으로 士와 斯 두 종류 모두 사용되었다. 이로 볼 때 /s/번역에 士, 斯가 주로 사용되었으며, 일본에서도 /s/번역에 士, 斯가 활용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외국 지명을 번역 표기함에 있어서, 음역 형태소의 규칙성을 찾을 수 있다. /la/의 표기의 대표 형태소는 刺, 拉 등이고 /dun/의 대표 형태소는 頓, 敦 등이며, /sa/의 대표 형태소는 撒, 薩이다. 또한, /s/의 대표 형태소는 斯이다. 위의 대표 형태소 중 刺, 拉와 撒, 薩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후자로 변화하여 통시성의 문제도 있음을 알 수 있다. 번역의 대표 형태소로 사용되는 음역 형태소는 중국 뿐만 아니라 한국, 일본 등의 한자 문화권에서도 사용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4. 『米歐回覽實記』의 외국 지명 음역 표기의 특징

『米歐回覽實記』의 외국 지명 번역 표기와 중국의 『海國圖志』의 표기를 비교 분석하고 한국의 『개화기 외국 지명 표기사전』에 포함된 한자 외국 지명 번역 표기를 보조적으로 사용하여 『米歐回覽實記』에서 사용한 외국 지명 번역 표기의 특징을 귀납하면 다음과 같다.²⁵⁾

첫 번째 특징은 중국의 외국 지명 한자 표기를 많이 참조하였다. 특히 전통적 아시아 국가와 북미 유럽의 강대국의 국가명은 중국에서 이미 번역된 어휘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英蘭(England), 米利堅(USA), 西班牙

25) 이한섭, 박성희, 『개화기 외국 지명 표기사전』, 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문화원, 2017.

(Spain), 葡萄牙(Portugal), 佛蘭西(France) 등이 있다. 앞 절의 일치율 조사에서도 밝힌 바가 있듯이, 대륙명, 국가명 등은 중국의 외국 지명을 그대로 차용하거나, 중국에서 많이 사용하는 음역 형태소를 사용하여 재조합하는 경우가 많았다.

두 번째 특징은 중국의 전통 번역이 없거나 번역이 존재하더라도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경우, 『米歐回覽實記』의 구메 구니다케(久米邦武)와 하다케야마 요시나리(畠山義成) 등의 저자가 직접 외국 지명을 번역하였다. 다만, 중국의 번역과 번역법을 토대로 한다. 중국어에서 외국 지명을 음역을 할 때, 빈번히 사용되는 형태소가 있다. 일본도 이 음역 형태소들을 일본 한자음을 고려하여 적절히 사용하였다. 예를 들면 獨乙(Deutschland), 甘察加(Kamchatka), 豪斯多刺利(Australia) 등이 일본 조어이다.

세 번째 특징은 『米歐回覽實記』에서는 한자 표기 외에 일본의 카타카나를 사용하여 표기한 지명이 있다. 19세기 중후반 이후, 일본은 개방정책을 실시하고 메이지 유신(1868)을 단행하는 등의 내부적 개혁 및 변화를 도모하는 한편 외부적으로도 변화를 꾀하였다, 그 중의 하나는 한자문화권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다. 이는 미국과 유럽 등의 서양과의 언어 접촉을 통해 발생한 것인데, 이 시기에 일본은 표의 문자 중심에서 표음 문자 병기로 전환한 것으로 생각한다.

네 번째 특징은 중국에서 외국 지명을 번역할 때 사용 빈도가 높은 음역 형태소는 일본에서도 사용 빈도가 높다. 필자는 『개화기 외국 지명 표기사전』을 이용하여 한국에서 많이 사용되는 음역 형태소의 사용 빈도를 조사한 바 있는데, 『개화기 외국 지명 표기사전』중 음역 형태소의 사용 빈도는 아래와 같다.²⁶⁾

26) 金琪源, 앞의 논문, 2003, 88쪽.

표8 19세기 조선 문헌 중 외국 지명 음역 형태소 사용 빈도수

횟수	사용 빈도
50회 이상	阿a:54 亞a:160 斯s:64 西si:50 s:10 zi:5 尼ni:55 加ca:75 ga:11 馬ma:65 利ri(li):119
10회 이상~49회	安an:20 巴ba:16 pa:18 比b :47 P:9 伯b:19 時si:10 沙sa:11 士s:13 秀s:15 蘇su:15 哥ca:10 co:16 得d:11 te:5 大ta:11 t:5 德d:12 t:6 de:5 拉la:43 那na:11 na:26 里li:47 刺la:10 羅la:25 lo:18 ru:5 蘭lan:33 land:23 斯坦stan:11 土tu:10 t:6 to:6 太t:12 da:5 ta:16 美me:23 mi:5 米me:19 仁in:10 伊i:18 露ru:11
5회 이상~9회	愛a:6 諺al:6 澳au:9 奧au:8 塙au:6 濠au:6 非f:8 弗f:5 拔bal:6 波bo:5 po:9 彼p:7 滿man:7 白be:5 普p:6 多da:7 do:6 達da:5 細si:7 薩sa:7 撒sa:7 塞se:9 基ki:5 支ji:7 古go:5 co:8 吉ji:6 格k:7 葛cal:5 高co:5 丁den:5 tin:5 地t:8 的t:5 麻ma:6 奈na:5 拿na:8 紐new:8 黎ri:6 老ro:8 理li:5 倫lon:6 lom:6 林lin:5 特de:5 富b:7 哈ha:7 瑞swi:7 他ta:7 頓ton:5 布p:9 莫mo:6 印in:5 意i:8 魯ru:8 義i:8 維vi:5 威way:6 烏u:7

『개화기 외국 지명 표기사전』에서 19세기 조선 문헌 중 외국 지명 음역 형태소 사용 빈도수가 가장 높은 것은 阿, 亞, 斯, 西, 尼, 加, 馬, 利, 里, 拉, 蘭, 比, 巴 등이다. 마찬가지로, 『米歐回覽實記』에서도 阿, 亞, 斯, 西, 尼, 加, 馬, 利, 里, 拉, 蘭, 比, 巴 등의 음역 형태소의 사용 빈도가 높다.

표기 상의 구체적 특징을 살펴보면, 『米歐回覽實記』에서는 阿와 亞가 /a/의 발음을 표기하는데, 亞의 표기가 阿의 표기보다 많으며, 亞위주로 통일하고자 하였다. 亞弗利加(Africa), 亞細亞(Asia), 亞墨利加(USA) 등 대륙명은 亞를 사용한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또한 阿는 阿刺伯海(Arabian Sea.), 阿斯達拉干(Astrakhan)²⁷⁾ 등 비강대국 및 국가 이외의 지역명에 사용하였다.

/li/의 음역 형태소는 利, 里, 黎 등이 있는데 利의 사용 빈도가 가장 높으며 그 다음으로 里, 黎 등의 순서이다.²⁸⁾ 利의 사용은 대부분 대륙명, 국가명 등 중국에서도 사용 빈도가 높은 어휘들이다. 이는 대부분 중국의 번역법을 참조한 것으로 보인다. 豪斯多拉利 등 호주의 번역 표기는 일본의 음역어이지만 대륙명, 국가명에서 利를 사용한 만큼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利를 사용한

27) 러시아 볼가강 하류 삼각지의 도시명

28) 利: 亞弗利加, 豪斯多拉利(4種) 奧地利, 加利福尼(2種) 中亞米利加(2種), 智利, 馬利蘭土, 北亞米利加(2種), 南北亞米利加, 米利堅(5種) 匈加利, 以太利 등 22여개이다. 里: 依里湖(erie lake), 里的(leeds), 里卑(lippe), 里斯奔(lisbon), 細白里(Siberia 2種). 黎: 巴黎. 臘: 希臘.

것으로 보인다. 里의 사용은 대부분 도시명, 자연명 등에 국한되어 있다. 黎는 『米歐回覽實記』에서 과리의 음역어만이 사용되었다.

/la/, /ra/의 음역 형태소로 『米歐回覽實記』에서 사용된 것은 刺, 拉, 羅, 辣, 爾, 來 등이 있다. 『개화기 외국 지명 표기사전』에서 음역 형태소의 사용 빈도가 높은 순은 拉, 羅, 刺의 순으로 나타난다. 반면 『米歐回覽實記』에서는 刺, 拉, 羅의 순서를 보인다.

다섯 번째 특징은 일반적으로 외국 지명 음역에 사용되는 형태소는 의미를 지니고 있지 않다. 그러나 land, stan, new, burg 등을 음역할 경우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예컨대, 『海國圖志』에서는 land의 음역어 蘭과 stan의 음역어 斯坦 등을 찾을 수 있으나, new는 음역을 하지 않고 新으로 번역하였다. 앞의 蘭과 斯坦은 land와 stan의 의미인 땅, 지방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외국 지명 번역 표기 후에 땅, 지방 등의 의미를 포함하게 되었다. 新은 new와 소리의 연관성은 없고 의미적으로 번역된 것이다. 『米歐回覽實記』에서는 land의 음역어 蘭을 찾을 수 있고, 斯坦은 표제어가 등장하지 않는다. new는 新으로 번역되었고, New york의 번역어로 新約克가 사용되었고, New Mexico의 번역어로 新墨是科가 사용되었다. New Zealand는 아직 번역되지 않았고 카타카나로 표기하였다. burg, bourg, borough 등은 인도 유럽어족의 동원어로 독일어, 스웨덴어에서 성(城), 요새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海國圖志』와 『米歐回覽實記』에서 burg, bourg, borough 등은 堡로 번역하였다.

여섯 번째 특징은 『米歐回覽實記』에서 양성운미/m/과 /n/을 구분하여 표기하는 음역과 구분하지 않는 음역이 있다. 아래는 구분하여 표기하는 예와 구분하지 않는 예이다.

양성운미/m/ 규칙을 지키는 경우: 奄/am/: 奄特坦(Amsterdam), 甘/gam/: 甘察加(Kamchatka pen.)

양성운미 /m/과 /n/ 사용이 모호한 경우: 森/sen/: 波森(Posen), 翰/ham/: 北明翰(Birmingham), 坦/dam/: 鹿特坦(Rotterdam) 孟/bom/: 孟買(Bombay), 冷/lem/: 耶路撒冷(Jerusalem), 龍/lon/: 閣龍比亞(Columbia)

위의 예시를 보면, 奄/am/과 甘/gam/은 양성운미/m/ 사용이 명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森/sen/은 양성운미/m/이 /n/으로 변화한 것이다. 翰/ham/과 坦/dam/은 양성운미/n/으로 음역해야 하지만, 양성운미/m/을 사용하였다. 또한, 孟/bom/과 冷/lem/은 양성운미/ŋ/로 음역해야 하지만 『米歐回覽實記』에서는 양성운미/m/으로 사용하였다. 龍/lon/은 원래 양성운미/ŋ/로 음역해야 하지만 /n/으로 음역하였으며, 원음은 /m/으로 음역해야 한다. 양성운미/ŋ/는 /n/으로 약화되었다.²⁹⁾

일곱 번째 특징은 『米歐回覽實記』에서 입성운미는 대부분 고려하지 않고 번역한다. 유길준의 『西遊見聞』에서도 전통적 표기 및 유럽, 북미 등의 강대국 표기에 있어 입성운미를 고려하지 않고 중국의 표기를 따랐으나, 저자가 직접 음역할 경우 한국 한자음의 입성운미를 고려한 번역이 있다. 예를 들어 /la/의 번역으로 중국 음역 형태소 拉, 刺가 많이 사용된다. 拉, 刺는 각각 /-p/입성과 /-t/입성인데, 중국 근대음에 이르러 입성이 소실되므로 /la/로 표기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 한자음에서는 여전히 拉, 刺의 입성이 소실되지 않고 존재하므로, 유길준은 /la/의 대표 형태소로 羅를 사용하여 번역한 경우가 많다.³⁰⁾ 『米歐回覽實記』에서는 일본 한자음의 입성운미 소실 혹은 변화를

29) 英/en/: 英蘭, 英倫(England), 孔/kon/: 孔士丹丁(Constantinople), 盛/sin/: 華盛頓, 生/sen/: 普魯生(Preussen), 桑/san/: 桑方斯西哥(San Francisco), 丁/tin, ten, den/: 孔士丹丁(Constantinople), 巴丁(Wadden), 亞丁(Aden), 匈/hon/: 匈加利(Hungary), 明/min, men/: 北明翰(Birmingham), 薩列明度(Sacrement), 蒙/men/: 蒙古(Mongolia), 昂/yon/: 里昂(Lyon), 朗/ran/: 佛朗西(France), 令/rin/: 白令峽(Bering Sea), 稜/len/: 佛羅稜(Florence), 傍/ban/: 傍葛刺(Bangladesh)

30) 金琪源, 앞의 논문, 2003, 85쪽. 『西遊見聞』과 『海國圖志』의 입성자 비교

영어	『西遊見聞』	『海國圖志』
Paraguay	把羅貴	巴拉乖, 巴拉危涯, 巴拉圭, 巴拉涯, 巴拉危涯
Nicaragua	尼可羅果	尼加拉瓜
Honduras	混斗羅斯	哄都勒斯, 哄都拉斯
Guatemala	瓜多磨羅	瓜的馬拉, 危亞地馬拉, 尼亞地馬拉, 跨氏馬刺
Uruguay	猷羅貴	烏拉乖, 烏拉圭

고려하지 않고 중국의 번역을 차용한 경우가 많았다.

마지막으로 음역 형태소를 분석할 때 고려해야 할 것은 원어 음절을 나누는 방식에 따라 음역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Amsterdam)의 『海國圖志』의 음역은 安得堤都和 阿姆斯特丹이 있으며, 『米歐回覽實記』의 번역은 奄特坦이다. 『海國圖志』의 阿/a/, 姆/m/으로 번역하였고 일본은 /am/을 奄으로 음역하였다. 한국은 『개화기 외국 지명 표기사전』에 의하면 巖秀攄淡, 巖施達淡府 등이 있는데 巖/am/으로 음역하였다. 미국 미시시피강(Mississippi river)의 음역으로 『米歐回覽實記』에는 密士失比와 密斯失比河가 있다. 『海國圖志』에는 密士失必, 密西西比河, 米西悉比, 米西西卑, 美士細比가 있으며, 『개화기 외국 지명 표기사전』에 한국의 번역은 美時什被江이 있다. 미시시피강의 음역은 한국은 음절 구분을 /ssip/과 /pi/으로 했지만, 중국과 일본은 /ssi/과 /ppi/으로 하였다. 이처럼 음절을 어떻게 구분하느냐에 따라 음역이 달라질 수 있다.

5. 결론

본고는 『米歐回覽實記』에 수록되어 있는 외국 지명 번역 표기와 중국 문헌 『海國圖志』에 수록된 외국 지명 번역 표기를 비교 분석하여 표기 간의 유사도 통계 분석하고 『米歐回覽實記』에 수록된 외국 지명 번역 표기의 특징을 고찰하였다.

林則徐가 수집한 서양의 정보를 魏源이 수정 보완하여 『海國圖志』로 간행하였다. 이는 동아시아 각국에 영향을 미쳤는데, 일본에는 1850~1853년 사이에 『海國圖志』 60권 본이 일본에 전해졌다. 1853년 일본에서 훈점 번역본 및 훈해본 등 각종 번역본이 발간되었으며, 1854년까지 『海國圖志』 20여종이 발간되었다. 이러한 원인은 이 시기 각국은 서양과의 접촉으로 서양의 정보를 필요로 하였기 때문이다.

중국이 서적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였다면, 일본은 서적에서 벗어나 직접 서양의 정보를 수집하고자 하였는데, 이때 조직된 것이 이와쿠라 사절단이다. 『米歐回覽實記』은 이와쿠라 사절단이 미국 및 유럽 각국 12개국을 시찰하며 보고 느낀 것을 서술한 일본 정부의 국가 공문서이다. 이러한 점에서 『米歐回覽實記』는 높은 연구 가치를 갖는다.

『海國圖志』와 『米歐回覽實記』의 외국 지명 번역 표기를 일치, 재조합, 일본 조어, 카타카나 표기 4종류로 분류하여 대륙명, 국가명, 도시명, 자연명의 번역 표기 일치율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대륙명은 중국의 외국 지명 번역 표기와 일치하는 표기와 중국의 외국 지명 번역 표기를 재조합한 표기를 합쳐서 100%로 중국에서 이미 번역한 것을 사용하였다는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국가명, 도시명, 자연명은 각각 약 80%, 27%, 20%의 순으로 나타나 대륙명에서 자연명으로 갈수록 중국의 영향이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米歐回覽實記』는 『海國圖志』 등 중국의 외국 지명 음역을 참고하여 음역하였으며, 중국의 음역 형태소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전통적 아시아, 유럽, 북미의 강대국들 이외에는 직접 음역을 조어하려고 노력하였다. 예컨대, 새로운 지역명, 자연명 등은 카타카나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미 중국에서 번역된 외국 지명에도 카타카나를 표기하는 등 한자 일변도의 외국 지명 표기에서 변화된 형태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본 한자음 측면에서, 『米歐回覽實記』의 입성운미와 양성운미는 지켜지지 않았는데, 이는 중국 번역을 차용 혹은 재조합한 것으로 생각한다.

19세기 말 중국의 근대 외국 지명 표기는 여전히 한자문화권인 일본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러나 일본은 『米歐回覽實記』를 통하여 미국과 유럽을 이해하고자 노력하였고, 카타카나를 이용하여 지명의 음을 표기하였다. 이는 일본이 독자적 근대 어휘 음역의 시발점에서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중국과 서양 사이의 과도기적 언어 접촉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 다루지 못한 『米歐回覽實記』에 수록된 외국 지명 번역 표기와 일본 한자음의 성운학적 관계에 대해서도 규명할 필요가 있다. 『米歐回覽實記』

의 표기가 일본 한자음 규칙을 고려하면서 외국 지명 번역 표기를 하는 것인
가에 대한 부분은 후속 논의를 통해 이어가고자 한다.

參考文獻

- 페데리코 마시니, 이정재 옮김, 『근대 중국의 언어와 역사』, 서울: 소명출판, 2005.
- 다나카 아키라(田中彰), 현명철 옮김, 『메이지 유신과 서양문명-이와쿠라 사절단은 무엇을 보았는가?』, 서울: 도서출판소화, 2006.
- 이기문, 「중세 몽골어 차용어에 대하여」, 『새국어생활』 제17권 제4호, 2007.
- 박성희, 「『特命全權大使米歐回覽實記』의 서양지명 표기 연구」, 『日本語學研究』, 제32집, 2011.
- 박성희, 『明治期日本の 西洋地名表記研究-特命全權大使米歐回覽實記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2.
- 쩌우전환(鄒振環), 한지은 옮김, 『지리학의 창으로 보는 중국의 근대』, 서울: 도서출판 푸른역사, 2013.
- 이성환, 「태정관과 태정환 지령은 무엇인가?-독도 문제와 관련하여-」, 『독도연구』, no.20, 2016.
- 이한섭, 박성희, 『개화기 외국 지명 표기사전』, 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문화원, 2017.
- 김기원, 「개화기 조선의 외국 국명 한자 표기에 반영된 언어학적 특징 고찰」, 『중국문학연구』, 제71집, 2018.
- 김기원, 「차용어 ‘사돈’과 ‘수라’의 의미 및 표기 문제 고찰」, 『中國語文論叢』, 第85輯, 2018.
- 久米邦武, 『特命全權代使米歐回覽實記』, 東京: 博文館, 1878.
- 馬西尼撰, 黃河清譯, 『現代漢語詞彙的形成—十九世紀漢語外來詞研究』, 上海: 漢語大辭典出版社, 1997.
- 魏源, 『海國圖志』, 湖南: 嶽麓書社出版, 1998.
- 王力, 『漢語史稿』, 北京: 中華書局, 2004.
- 金琪源, 『19世紀末朝鮮文獻中的新詞研究—從語言接觸視角出發』, 國立政治大學博士學位論文, 2023.

인터넷 자료, 小學堂, <https://xiaoxue.iis.sinica.edu.tw/>

Abstract

A Study on the Similarity and Transliteration Characteristics of Foreign Place Names in 19th Century Chinese and Japanese Literature

— Focusing on the 19th Century Japanese Document *Beikokairanjikki*

Kim, Ki Won

Matteo Ricci writing activities in China during the 16th century can be considered the starting point for the transliteration of foreign place names. The transliterations created during this period continued to influence Chinese literature until the 19th century and also had an impact on the Chinese cultural sphere, including Korea and Japan.

This paper aims to explore the influence of China by measuring the similarities between the foreign place name notations recorded in Wei Yuan's *Haiguotuzhi*, published in China after the Opium War, and those in the Japanese government document *Beikokairanjikki*. The similarity measurement was categorized into continental names, country names, city names, and natural names. The methods of notation were classified into four categories: matching notations, recombination of phonetic elements, Japanese coined terms, and Katakana notation, and statistics were compiled accordingly.

The results of the similarity measurement revealed that the names of continents and countries in both texts were directly borrowed from Chinese place names or reassembled phonetic elements. In contrast, the names of cities and natural features showed a diminishing Chinese influence, with a trend towards using Katakana notation instead of Chinese characters.

Keywords: *Haiguotuzhi*, *Beikokairanjikki*, transliteration, phonetic elements, foreign place name notation

투 고 일 : 2024. 7. 10. / 심 사 일 : 2024. 7. 15. ~ 2024. 8. 15. / 게재확정일 : 2024. 8. 20.